

<이슈 대응 집담회>

'우울증'이 덧이 되지 않으려면

: 우울증 갤러리 함께 이야기하며 연대의 그물망 짜기

2023.6.14(수) 오후 7시 30분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목 차

사회 :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문자통역 : 김수빈(쉐어타이핑 문자통역사)

발표 1. 우울증겔러리와 강간문화	1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발표 2. 온라인 기반 성착취 대응하기	6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	
발표 3. 10대 여성의 온라인 친밀성과 위협	10
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발표 4. 여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16
이민아(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 5. 우울증/트라우마 경험과 회복의 조건	25
최현정(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함께 이야기하기	29

우울증 갤러리와 강간문화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지난 4월 16일 10대 여성이 강남의 한 건물에서 스스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리고 고인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며 강간, 성매매 피해를 입은 배경이 있었으며 우울증 갤러리 내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성인 남성들의 각종 성범죄가 빈번히 이루어져 왔다는 고발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 “진화된 N번방”¹⁾ “제2의 N번방”²⁾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잉규제를 우려하며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권고하였다.³⁾ 여성가족부는 5월 9일 ‘신변중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청 TF구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임상심리사 배치, 찾아가는 사이버 현장상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⁴⁾ 온라인 환경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되, 개별 범죄 사안 대응 및 개별 아동·청소년에대한 심리정서적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우울증’이라는 취약성이 어떻게 성폭력과 성착취 등 성범죄에 이용되었는지 그루밍 성폭력으로서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불안정한 가정환경이나 폭력피해로 인해 우울증갤러리에 유입되었다거나, 미성년자인 점이나 피해자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집단’의 취약성에 대한 강조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울증 갤러리에서 10대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사안을 다각도로 이해하려면 ‘보호’ 말고도 어떤 이야기들이 필요할까? 이번 집담회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1) 우울증=성적 취약성? 문제는 강간문화

“강간문화는 성폭력을 용인하는 지속적인 젠더불평등 및 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태도에 의해 일상화, 정당화되고 부추겨지는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명명하는 것은 강간문화를 해체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⁵⁾

1) 한겨레신문, ‘진화된 n번방’ 우울증갤러리...피해자 취약성 악용해 우울감 가진 이에게 접근해 착취·통제하는 ‘그루밍 성범죄’...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751.html

2) 한국일보, [영상] 제2의 n번방? 참혹한 우울증 갤러리의 실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4040001631>

3) 한국일보, ‘우울증 갤러리’ 차단 안 한다... 방침위, 자율규제 강화 권고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215370000986>

4) 경향신문, ‘우울증 갤러리’ 경찰청에 TF 설치... ‘차단 조치’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091424011#c2b>

해당 종합대책의 다른 과제로는 룸카페 등을 포함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차단 및 치유 지원, 사이버 도박 등 차단 및 예방 강화,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5) 원문: Rape culture is the social environment that allows sexual violence to be normalized and justified, fueled by the persistent gender inequalities and attitudes about gender and sexuality.

우울증 갤러리에서 일어난 성폭력 범죄 사안의 한 판결문⁶⁾에서 가해자는 “여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우울증 갤러리를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한다. 우울증갤러리 안에서 성착취가 빈번했다는 온라인상의 고발에서도 성인 남성들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주 등장한다. 갤러리 이용자들이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구글 자동검색에 ‘우울증 여성’을 검색하자 하단에 관련 검색어로 ‘우울증 여자 먹버’ ‘우울증 여자 꼬시기’가 떴다. 주로 남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었다. 여성신문에서는 “성착취 위해 ‘멘헤라?’ 사냥하는 남성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자 정병은 술자리가 끊이질 않는다. 동호회 3,4개 걸쳐놓고 어장질은 기본에, 클럽나이트에서 원나잇은 양반이고, 부족한 돈 매꾼다고 업소 알바뛰는경우도 흔함;; 최근엔 소모임에 많이들 상주함;; 경험상 말이 안 통하고, 입이 거칠며, 스킨십을 좋아하고 남자가 계속바뀜”⁸⁾ “먹버를 당한다고 하는데, 남자쪽 이야기도 들어봐야한다”⁹⁾

남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에서는 우울증 가진 여성에 대한 타입, 특성, 전략, 경험담이 등장한다. ‘남성에게 의존적이고 성적 문란하고 쉽게 자준다’는 것으로 요약되며 이들에 대한 전형적인 상이 만들어진다.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가진 여성들을 성적으로 정형화하는 동시에 관계 맺는 사람을 피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존재로 혐오하며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남초 커뮤니티의 강간문화는 “강간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계속 퍼뜨리며, 섹스와 강간을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59)으로 만든다.¹⁰⁾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던 이용자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10대 여성과 성인 남성의 연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했으며, 남성 유저들이 여성과의 연애, 성관계, 데이트 폭력 후기를 갤러리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문화가 있었다고 말한다.¹¹⁾ 여성들과의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 경험을 과장하고 자랑하는 행위는 강간을 더욱 실천 가능한 것으로, 해 불만한 것으로 만든다. 그동안 추억, 놀이, 음담패설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남성문화의 일종이며, 여성의 성을 통해 남성성을 확인하고 여성에 대한 강간이나 폭력 통제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10대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이면에는 온라인상에서 우울증을 가진 여성들을 ‘성적으로 이용해도 괜찮은 문란한 존재’로 만드는 문화가 있다. 우울증 가진 여성들이 실제로 이러한 특성이 있는가 아닌가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경험과 후기를 공유하면서 ‘특정한 상’이 형성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울증을 가진 여성들의 취약성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Naming it is the first step to dismantling rape culture.)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2019/11/compilation-ways-you-can-stand-against-rape-culture>

6) 중앙일보, “소녀 셋 극단선택 시도 뒤엔 그 남자” 울겔 폭로 전화 걸려왔다 [울겔 리포트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9416> 기사 속 ‘우울증 갤러리 속 성범죄 사건들’ 중

7)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일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멘탈 헬스(Mental health) 게시판에 있을 만한 사람’을 이르는 말에서 파생되어 인터넷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로 쓰이게 됨.

8) 우울증 갤러리의 여자 꼬시는 방법 ㄷㄷㄷ.JPG

https://www.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5730614344&mid=humor&cpage=1

9) 우울증 있는 여자들의 A to Z를 알아보자(뇌피셜+장문주의) <https://www.fmkorea.com/5733308752>

10) 권김현영,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 『피해와 가해 사이』(2018) 59p

11) 시사인, 우울증갤러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86>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해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성폭력에 이르는 데에는 우울증 상담을 해주겠다는 호의, 맛있는 것 먹고 놀자는 제안¹²⁾, 우울증 약을 대신 구해주기¹³⁾, 신상을 알려겠다는 협박¹⁴⁾, 게시판 내에서 성적 괴롭히기 등이 동반됐다. 신대방팸이나 신림팸과 같은 파생된 모임에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관계(세력, 친밀성) 안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심리적인 취약성만으로 이야기될 수 없는 젠더 권력의 차이, 사회경제적인 자원의 부족, 안심시키거나 성폭력 목적을 감추는 행위 등이 성폭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 우울증갤러리 사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심리 정서적 취약성’은 권력 관계와 강간문화는 잘 보이지 않게 하고 피해자들의 내면의 문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10대 여성들의 피해 경험들을 강간죄로 판단할 수 있을까?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주는 사회적 공분과 대응을 촉발해왔다. 2020년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이 만13세에서 만16세로 상향되었다. 2021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통과되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의자는 2019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지만,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그 실효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특히 강간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어떠할까?

한국의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역시 그 기본적인 규정은 형법 297조 강간죄에 있다. 범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유형력의 수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수많은 성폭력 피해는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다. 아동·청소년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간 피해 조사에서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사례는 20-60세 성인이 31.6%였던 반면,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3.7%로 더 낮았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을 보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78%가 강제나 강압 없이 이루어졌으며, 강간의 62.8%가 강제/강압 없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를 별도로 이동시키거나 유인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사례의 71.4%를 차지했으며, 그 중 사적인 공간(집, 자동차 안, 모텔, 노래방, 룸카페 등 타인과 구분되는 공간)에 함께 있다가 발생한 경우가 34.4%로 가장 높았다.

12) 중앙일보, “소녀 셋 극단선택 시도 뒤엔 그 남자” 울겔 폭로 전화 걸려왔다 [울겔 리포트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9416> 기사 속 ‘우울증 갤러리 속 성범죄 사건들’ 중

13) 서울경제, 악물로 10대 유혹… 신대방팸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FF2IHXX>

14) 한겨레신문, 위로한다며 성관계 요구… ‘우울겔’ 10대 노리는 성인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8892.html>

폭행협박 없는 피해 현실을 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서는 16세 미만이라는 연령을 기준으로만 강간을 판단하고 의제강간으로 처벌하고, 아동법에서는 13세-16세 피해자를 성인이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외관상 성적 결정,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고려해왔다.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사건이 강간죄 고소고발 사건의 0.45%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이야기 되는 반면¹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사건(2021)에서 위계위력을 이용한 유형은 다른 강간 유형보다 19.9%로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이 폭행협박 입증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2019년 10세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인 후 강간한 35세 보습학원 원장 사건에서는 '몸을 누른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강간죄가 아니라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징역 8년(1심)에서 3년(2심)으로 감형되어 확정되었다. 2017년 20대 남성이 속옷과 양말을 사기 위해 채팅 어플에서 17세 여성을 만나서 강간한 사건에서 재판부와 배심원은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겁을 준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해, CCTV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거나 채팅앱 대화, 둘이서 만난 이후 행적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¹⁶⁾

강간죄 성립의 기준 자체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피해자의 저항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청소년의 제한된 사회적 권리, 주거 상황, 지지 관계나 자원의 부족으로 성인에게 의존하거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은 경우, 또 적극적으로거나 협력적으로 행동한 경우 성폭력 피해가 축소되거나 인정되기 어려워진다. 대표적인 사안이 2017년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 가해자가 27살 차이의 15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편지와 문자에서 화를 낼 것 같아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적은 것, 스티커를 사용하여 꾸민 것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고 최종 무죄를 확정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5세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지만) 2018년 2심 재판부는 15세인 피해자가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가 협력적이거나 자발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¹⁷⁾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는 판결의 태도는, 청소년 피해자의 무력함, 무능함을 강조하는 사회적 시선과 연관되어 있다. 아무리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한들 성폭력 판단기준이 폭행협박인 상황에서 성폭력은 결국 저항 여부나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침해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현재의

15) 강간죄개정연대,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②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https://www.sisters.or.kr/activity/law/6803>

16) 1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 무죄 선고 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139720#home>

17) 성적자기결정권이 행사되면 성적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동의) vs.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성폭력) 이라는 시선은 선택/강요 적극/수동 성관계/성폭력을 이분화하고 동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적극성과 선택이 성폭력과 공존할 수 없게 만든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단지 성행위를 할지 말지 선택할 권리일 뿐일까?

강간죄는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3) 누구와 어떻게 연대해갈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쉼터 열림터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온라인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청소년 생활인들이 늘어나고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고민이 늘어났다. 열림터 활동가들은 스터디와 인터뷰 과정을 거치며 "머리를 맞대어도 풀리지 않는 지점에는 언제나 관계가 있었다"고 포착해낸다. 그리고 "친밀성의 관계를 둘러싼 생존자의 환경을 넓게 이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기" "다양한 관계를 구분하고 어떻게 기준을 정해 행동할 것인지" 교육하기(힘 기르기) 라는 지원 방향을 도출해낸다.¹⁸⁾ 이는 지원현장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울증 갤러리 사안을 마음 무겁게 바라보는 사회구성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일어난 사안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관계'가 실마리일지도 모른다.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우울증을 잘 다루고 싶고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 짐작한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이미 우리 모두가 접속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로그아웃'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¹⁹⁾,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가 여성 청소년들과 다른 관계 맺기를 해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18)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소식지 나눔터91호 성문화 읽기 <어려우니까, 스터디합시다! : 열림터 온라인X청소년X섹슈얼리티 스터디> <https://www.sisters.or.kr/data/magazine/311>

19) 시사인, 우울증갤러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86>

온라인 기반 성착취 대응하기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

들어가며: 온라인 공간의 젠더화

한국 사회에 사이버성폭력이라는 문제가 나타난 것은 이미 1990년대 후반의 일로, 이 당시 가해 양상은 성적인 텍스트와 이미지 전송, 원치 않는 성적 대화 요청, 피해자를 사칭해 성적 개인정보 혹은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보고됨. 사이버성폭력은 “통신 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정보화로부터 여성을 소외시키고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 지적됐으며, 더불어 “남성 중심적 성문화를 현실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재현·양산”시킬 수 있다고 분석됨.²⁰⁾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응할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고, 통신사들의 책임은 ‘표현의 자유 검열’이라는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 따라 한국의 사이버 공간은 여남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조성됨. 또한, 2000년 이후의 정보통신 환경이 인터넷으로 변화하고, 젠더 규범에 충실한 사이트들이 ‘커뮤니티’로 성공하며²¹⁾ 지금의 “여초” “남초” 커뮤니티의 기반이 됨.

남초 커뮤니티는 남성성이 구성되는 주요한 공간 가운데 하나로, 이용자들은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남성문화를 공유함.²²⁾ 사회적·경제적 변동에 따른 남성들의 ‘위기감’은 성차별과 성적 대상화/도구화를 증폭시킨다고 분석돼왔으며, <디시인사이드>를 근간으로 하는 <일간베스트>의 폭력적인 정서가 남초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면서 온라인 공간의 젠더화는 여성에게 더욱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양상을 보임. 이 같은 ‘여성혐오’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정치의 문제로 고민되어야 함.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를 다룰 때 ‘여성혐오’ 네트워크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함. 불법촬영물을 비롯해 지인능욕, 합성사진 등의 사이버성폭력은 남성사회의 놀이문화이자 산업화 양상을 보임. ‘고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을 멸시하는 행위가 ‘즐겁다’는 놀이의 감각이 필요. 즐거움과 재미, 동질성을 추구하는 장으로서의 온라인 공간이 젠더화되어 있으며 그 양상이 매우 폭력적인 수준이라는 사실은 우울증갤러리에서 성착취가 어떻게 가능했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임. 우울증갤러리의 성착취 가해자들은 ‘여성혐오’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며, 더욱 깊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은 이를 방관하는 문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책임일 것.

20) 김은경(2001),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7호, 73쪽.

21) 김수아(2011), 「한국 사회 사이버 공간과 젠더 정치」, 강상현 엮음,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커뮤니케이션북스, 163쪽.

22) 김수아(2022), 2030세대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성 규범: 반 페미니즘 정서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9권 제4호, 162쪽.

본론 1: 우울증갤러리 성착취 사건을 둘러싼 책임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22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임시 폐쇄 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에 “해당 게시판이 자살유발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다수 게시물이 단순 우울감 호소와 우울증 극복 방법 등 도움을 주는 내용 등이 혼재돼 있다”며 “개별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판 전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는 것은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율규제 강화”를 의결함. 디시인사이드의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이미 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 같은 의결은 사실상 효용을 기대하기 어려움.²³⁾

이 의결이 이루어진 3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을²⁴⁾ 살펴보면, 윤성욱 위원은 접속 차단이 부적합한 이유를 “사람들이 특정 커피숍에서 모여서 범죄를 공모한다고 해서 [그곳을] 폐쇄한다고 범죄가 줄어들거나,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 그러나 우울증갤러리 등 성착취 피해가 발생한 플랫폼을 “커피숍”에 비유하는 것은 지금 온라인 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성착취 상황을 협소하게 인지하는 것. 물리적인 피해를 중심으로 사고하면 사이버성폭력은 ‘실체 없는 것’이 되고, 피해 경험을 경시하게 됨. 우울증갤러리는 온라인그루밍을 비롯한 사이버성폭력이 발생한 현장으로 이해해야 함.

더불어 이광복 위원은 “그런 것까지 다 차단해 버리는 것은 과잉규제일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 재량권 남용이라고 시비를 붙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심의위가 나서서 무슨 제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없음’ 의견입니다”라고 발언.

디시인사이드는 한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공유와 개방! 보다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것”을²⁵⁾ 철학으로 소개함. 디시인사이드의 대표 김유식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 문제가 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심할 때도 많지만] 하나씩 제재를 가하다 보면 말을 거르게 되고, 디시만의 성격을 잃게 된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자는 취지”라고 답변함.²⁶⁾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모두에게 주어지는가? 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성착취 피해경험자들. 온라인 기반 성착취는 편향된 자유와 편향된 피해로써 지속되고 있으며, 디시인사이드의 존재 가치와 이윤도 이로부터 가능함.

여성가족부는 6월 1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우울증갤러리’ 등 온라인 공간 청소년 보호 방안 논의 착수”했으며, “온라인 게시판(커뮤니티)을 통한 유해환경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우울증갤러리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성착취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틀을 만들고, 이것은

23) 현재 디시인사이드의 자율규제 강화는 우울증갤러리에 들어갈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조치 권고에 따라 게시물,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는 팝업 알람을 띄우는 것임.

24) 3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https://www.kocsc.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

25) 디시인사이드 매체소개서, <https://nstatic.dcsinside.com/dc/dcad/w/index.html>

26) 『조선일보』, 「디시에 하루 게시물 75만개... 나는 멍석 깔아주는 하수인일 뿐」, 2019년 2월 2일 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1/2019020101417.html

결국 '청소년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을 만듦. 성착취는 취약함을 표적 삼아 일어난다는 사실은 누락됨.

본론 2: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라는 공간과 성착취

우울증 갤러리는 디시인사이드의 인기 갤러리로 수많은 갤러리들 사이에서 노출될 기회가 많으며, 익명 게시판이지만 고정된 닉네임을 사용해 자기 존재를 표시하면서 실체를 가짐. 같은 질병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의 역할을 함. 우울한 상태에서의 일상을 표현하고 공유하면서 친밀감이 형성되고, 소속감이 고조될 수 있음.

우울에 관한 말하기가 나타나는 여러 온라인 공간 가운데서 우울증 갤러리의 특징은 디시인사이드의 전반적인 경향 아래에서 구성됨. 우울감에 따른 괴로움, 고통에 대한 표현 방식과 정도를 제재하지 않고, 자신의 표현이 주위를 피곤하게 할까 봐 눈치 보거나 '우울을 전시한다'는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면이 두드러짐. 우울함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방식도 치유 담론이나 규범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음. 우울증을 성실히 치료해서 나아가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지도를 따라야 할 필요도 없음. 질병을 둘러싼 치유 담론, 규범들로부터 벗어나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정신건강의 취약함을 드러낸 여성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은 우울감을 표현할 자유, 익명 공간을 사용할 자유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더불어, 취약한 여성을 타겟 삼는 성착취 범주는 우울증갤러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중요함. 따라서 우울증갤러리가 애초에 '우범지대'였으며, 이곳의 비도덕적·비윤리적 환경 때문에 성착취 사건이 발생했다는 분석은 성착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젠더 권력 문제를 겨냥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를 증언하는 목소리들을 타자화할 가능성을 높임.

우울증갤러리는 위안과 위험이 엉겨 붙은 공간일 수 있음. 우울증갤러리의 효용이 질병 등으로 인한 소외감 혹은 박탈감 등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건이 사회문제화되는 과정에서 통념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우울증갤러리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피해로 변질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함.

결론: 무엇을 논의해야 하나?

우울증갤러리는 이번 성착취 사건의 현장임. 이 공간의 역사, 특징, 구성원이 성착취의 구성 요소라는 사실로부터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함.

우울증갤러리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공통점도 있지만 큰 차이도 보임.

우울증갤러리를 폐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운데 선명한 선택지는 없음. 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만으로는 해결 방안이 되기에 불충분하므로 반드시 다른 실천들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 모든 논의는 온라인 공간의 의미와 성착취 피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함. 더불어 온라인 공간 내 성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이 중요함. 온라인 기반 성착취는 '여성혐오' 네트워크의 자장에서 발생하고, 우울증갤러리만을 도려내서 해결할 수 없음.

더불어, 성착취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빌미로 청소년의 성과 온라인 활동을 더욱 통제하려는 시도는 저지되어야 함. 소외감, 고립감, 박탈감을 느끼는 취약한 이들이 성착취의 타겟이 된다면 이들의 맥락을 경청할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하고, 그로부터 일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탐색해야 함.

10대 여성의 온라인 친밀성과 위험

호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제목이 '10대 여성의 온라인 친밀성과 위험'인데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취약한 조건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불쌍하거나 경제적이거나 이분법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청소년들의 경제사회적 조건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가정에서 지원이 어려운 청소년들이고 문제적인 빈곤 상태에 있기도 한데 저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치는 빈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자원일 뿐, 청소년의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제사회적 조건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빈곤할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축은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하는 방식인데 청소년의 성적 행위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낙인과 비난으로 그것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섹슈얼리티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축 아래에서 10대 여성의 온라인 친밀성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여러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위험하게 보이는 상황인데도 낯선 남성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이 있을 때, 성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말 걸기를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예요. 그럴 때 이런 결정들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이루어지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런 만남이 다양한 피해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성교육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위험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저는 비청소년의 입장이죠. 그랬을 때 심각성을 가지고 위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작 청소년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난리냐고 하면, 내가 더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라는 질문도 하게 되죠. 위험할 수 있지만, 자신은 외롭고 심심하고 말할 사람이 필요해서 온라인에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부설 시설 열림터 활동가들과 함께 온오프스터디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만남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위험에 대해서 열림터에서 일상지원과 성교육을 할 때 온라인 세계와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청소년들의 온라인 세계에 대한 경험을 잘 이해 못 하고 있다. 혹은 잘 모른다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걸 2021년도에 고민하기 시작한 거고. 오늘의 주제는 '우울증갤러리'인데 '우울증갤러리'와

27) 발표자의 구두 발표 속기록을 편집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기사들을 찾아보다가 기사 제목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위험 알지만 기말 곳 없어" 이런 제목이었어요.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를 인터뷰해서 문구를 뽑은 것인데 사실은 이 문구가 2021년도에 고민했었던, 친밀성의 관계와 위협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제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을 아는데 왜 위협을 피하는 방식으로 실천하지 않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이 있죠.

여기서 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정말 아는 것이 맞나? 그리고 위협의 감지를 청소년이 어떻게 하게 되는가?라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기말 곳이 없다는 것은 친밀성의 관계에 대한 부재인 동시에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청소년들이 위협을 알지만, 온라인에서 친밀성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이야기되지만, 관계 맺기의 방식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것은 이것의 연결성입니다. 저희가 5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만났고요. 이들은 다양한 기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대체로 대부분이 성폭력 피해나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피해, 혹은 조건만남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원이 없고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한 환경에 있는 어떤 폭력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환경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 이용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왜 그런 방식들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는데 사실 저에게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영상, 전화, 채팅 등 진짜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관계 맺기는 왜 하게 되고,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걸 이해할 때 접근한 방식은 가족, 친구, 선후배, 또래 관계 사회적 관계망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계 연결성을 볼 수 있고 왜 온라인에 몰입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대체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들을 분석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접근입니다. 그리고 친밀성의 관계에서 이들이 자기 전략을 만들어나가잖아요. 그럴 때 어떤 관계들은 단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정한 거리를 설정하기도 하고, 헤어져야 되는 관계이지만 여전히 헤어지지 못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양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쉼터에서 만났을 때 랜덤 채팅이나 전화로 주로 남성들을 만나고 섹스에 몰입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제가 성교육으로 그 사람을 만날 때 저의 이해로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억압되고 외부의 접촉이 적은 환경에서 장기간의 성폭력 피해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억압된 자유에 관한 욕망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으로 보기도 했는데 그런 면이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성폭력 피해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쉼터라는 공간이 익숙한 환경에서 낯선 공간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 몰입할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일 때도 있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실 왜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청소년들은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데 "심심해서 한다." 당연한 것 같지만 반복된 서사거든요. 온라인 환경이라는 것은 일상의 무료함을 사실 채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정 정도. 그런 부분에서 심심해서 자기는 이것에 몰입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청소년들은 이걸 즐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일상이 힘들면 그것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서나, 심심해서 라고 하는 것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어서 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되는데로 살면 어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어둡게 느껴지면 더 나빠질게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데 물론 이 시간들을 나중에는 흑역사로 기억하게 돼요. 그렇게 자기를 평가해요. 나 그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 괘씸하고 싫다. 사실 이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이런 만남들이, 사실은 온라인 상의 만남들이 피해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별로 좋지 않은 만남들로 채워지기도 하죠. 일회성 만남을 통해서 왜 온기를 채우려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들한테도 터놓고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플로어: 친구가 싫어서.) 그렇죠.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공감과 이해를 바랄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부정적인 피드백인 거예요. 장난으로 넘기거나 나도 힘들었으니까 그만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보니까 사실은 낯선 사람한테 자기 힘든 걸 이야기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관계성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삶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혹은 용이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온라인에서 지금 친구들을 새로 사귀기는 어렵고,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옛날의 지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옛날 선배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서사에서 중요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선배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원이 없다 보니까 '무서운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권력 관계하고 연결되는 문제예요. 이럴 때 '무서운 선배'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 상당 부분 선배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일종의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친밀성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건강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친밀성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수월하다고 느끼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관계에서는 최초의 말 걸기가 필요하잖아요. 얼굴을 보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온라인 공간에서는 말 걸기 시작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만남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리고 요즘 만나는 청소년들 중에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대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면해서 만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게 마음적으로 편한 거예요. 이거는 피해의 경험 연장이기도 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친밀성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온오프에서 관계 맺기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가족이라든가 학교에서 관계 어려움이나 단절이 있을 때 사실은 상황의 취약성, 조건의 취약성이 온라인 관계 맺기의 몰입이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는데, 온라인 이용에는 자신의 고통을 공유하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의 고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고통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자해 행위를 서로 권유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을 함께 감소하는. '동반자' 되기 원한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SNS에서 자기의 어떤 부분을 노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늘 소문의 위험이 같이 있거든요. 소문의 생산과 정치라는 제목을 달아서 쓰기도 했는데. 아주 중요한 10대의 문화를 설명할 때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심함을 이야기했지만 채우는 방식.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물입이 떨어져요. 그런 게 있는 거죠. 한참 하다가 재미없는데? 이런 식의 시간이 오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코로나 19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사람 못 만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할 게 뭐 있냐. '우울증갯거리'도 코로나 19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가 온라인 문화는 10대 여성들에게 성적인 접근이 시도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섹스나 몸 사진이나 원치 않는 영상물을 요구받기도 하고 폭력성이 내재하는 공간이기도 한 거죠.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소문의 생산과 정치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들의 성적 주체로서의 10대의 섹슈얼리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섹스와 관련된 성적 행위와 관련된 소문들이 이 사람에게 낙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집단적 소문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소문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선 경험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가 있더라도 이 또래 문화에서 소문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혹은 문제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그 피해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소문의 생산과 정치 문제에 달려있다. 온라인의 만남에서 원하지 않는 소문을 되게 접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소문이라는 게 낙인을 통해서 침묵을 강요하고 대응 행위를 막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소문은 배제와 고립을 통해서 또 관계 위계를 만드는 정치이기도 해요. 소문의 생산과 정치는 관계를 단절시켜서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을 만드는데 대개는 이것이 권력 관계를 만들기 위한 효과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성차별적인 성문화에서 여성의 섹스가 낙인이 되는 문화는 10대 여성의 문화에서도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적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 10대라는 위치에서 성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어떤 이미지는 또래 관계에서도 폭력이지만 그것을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건 그냥 성관계지 왜 섹스야? 왜 10대가 섹스를 해? 이런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자신의 어떤 취약성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성문화, 규범에 이들이 놓여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위험에 대한 서사에 저는 집중하는 편인데 위험을 어떻게 감지하느냐, 위험의 서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의 질문인데 위험에 대한 감각은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안전한 것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한 곳에 살았어야 위험한 감각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만나고 이야기한 청소년들은 늘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감각, 감지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측면이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혹은 성교육을 할 때나 어른들이 말할 때는 위험한 거야,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으로 늘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측하기도 어렵고, 예측하고 싶지 않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안 먹힌다는 걸 늘 발견하게 돼요. 이 위험의 서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직접 겪어서 정신을 차려야 안다.'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 지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무기력하죠. 그거를 다 겪어야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 축을 만들 것인지 성교육 이야기 하면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위험과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서사가 있어요. 후의 서사가 계속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대인화 하는 서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변화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뭔가 청소년들의 표현으로는 어떤 상황일 때 세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들어요. 그럴 때 약간 예를 들어서 잠자리를 제공할 테니 와 볼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한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일단 거기는 가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다거나. 저는 그 감각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들이 있다거나 혹은 신고의 경험 같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성적 주체로서의 삶에서 중요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돼요.

요즘에 이런 게 있죠. 저는 위험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보호를 하려다가 관계를 망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나면, 관계의 자원이 빈곤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해로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마저 없으면 자기는 혼자가 되는 거야.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실은 정작 자기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도움이 혹은 자기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정확하게 자기 보호의 역할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위험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 가지 위험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동안. 왜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전달될 때 뭔가를 계속 금지하는 방식, 자유의 범위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뭔가 다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히려 불신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인 거죠. 한편으로는, 위험을 인지하는 감각이 높지 않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정확하게 위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충분한 정보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겪은 청소년들의 이야기, 서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른 청소년들에게 흐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위치에서 보는 위험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무리 자기 위치에서 설명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은 그 위험한 상황들의 경험들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고민이 되지만 더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후회와 죄책감의 서사를 어떻게 넘어서 수 있을까? 이 고리에 갇힐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해석이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주로 1:1 성교육을 하게 되는데 체크리스트를 써달라고 하면, 성교육에서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지 써달라고 하면 대부분이 관계 맺기를 선택합니다. 친밀성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지, 힘들지만 어떤 관계를 새롭게 조정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과 기준과 실천들이 교육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친밀성의 관계를,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잘 물론 이야기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의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새로운 관계들을 이 사람의 삶에서 구축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표 4

여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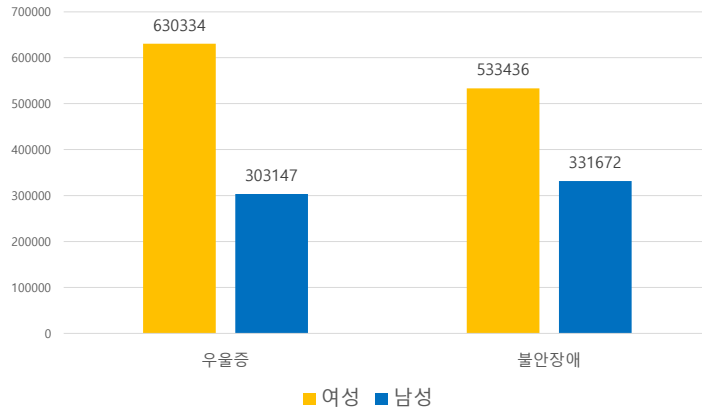
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목차

1. 문제제기
 2. 여성의 우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지배적 담론
 3. 여성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사회적 원인
 - 성별화된 생애 과정(Gendered life course), 차별적 노출(Differential exposure)
 4. 청년 여성의 현실과 정신건강
 -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 사회적 위치와 아노미
 - 젠더폭력의 발생과 영향력: 직접, 간접 노출의 문제와 트라우마
 5. 결론
-

1. 문제제기

- 여성의 우울증, 불안장애 유병률은 남성의 1.5배에서 2배에 이릅니다.
- 우울증,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인원이 아닌 일반 사회 조사를 분석해 보더라도 여성의 우울, 불안의 수준이 남성에 비해 높음.
- 이러한 격차의 원인을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심리적인 차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
- 과연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여성의 정신적 고통은 여성의 본질적 특성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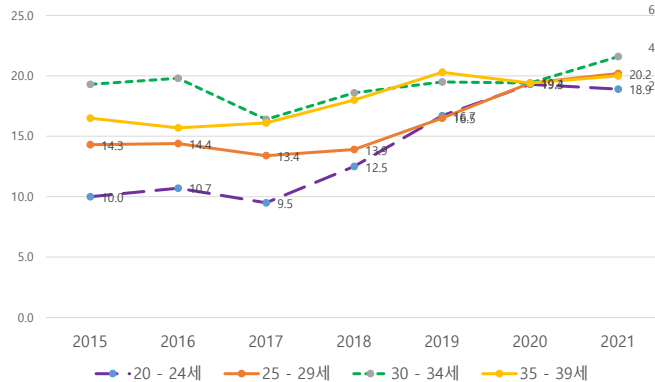


2021년 기준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 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1.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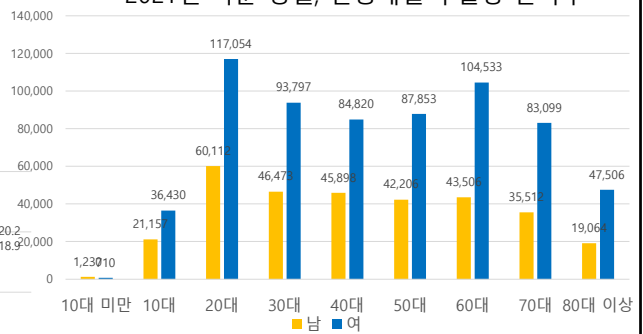
- 특히 현재 청년 여성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위기 상황.

청년여성 자살률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1년 기준 성별,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1. 문제제기

- 사회적 원인을 검토하지 않으면 여성의 고통을 제대로 분석, 이해할 수 없음.
- 청년 여성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
- 이를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지배적 담론을 검토하고 사회적 원인을 분석해야 함.

연령대 별 여성 자살률	2018	2019	2020	2021	2018년도 대비 2021년도 자살률 증감률
	20 - 24세	12.5	16.7	19.3	
25 - 29세	13.9	16.5	19.4	20.2	45.3
30 - 34세	18.6	19.5	19.4	21.6	16.1
35 - 39세	18.0	20.3	19.4	20.0	11.1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 여성의 우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지배적 담론

- 의학에서 보는 우울증의 원인
 - 신경전달물질의 화학적 불균형
 - 뇌의 기능저하, 성별에 따른 뇌의 에너지 대사 차이 가능성
 - 여성호르몬의 영향
- 여성호르몬의 영향
 - 에스트로겐이 여성 우울증의 원인
 - 월경 주기와 우울증, 생리전 증후군 (PMS)
 - 이른 폐경(완경)이 우울증을 유발
 - 이러한 시각은 여성을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우울 성향을 가진 존재로 그림.
 - 이 과정에서 사회의 영향력, 책임은 비가시화됨.

2. 여성의 우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지배적 담론

- 정신분석학적 전통+심리학적 접근
 - 여성의 심리적 성향의 문제
- 우울의 원인은 반추하기, 부정적 인지 반응
- 그러나 우울과 반추하기 등 간의 인과적 관계를 많은 경우 검증되지 않음. 실제 연구들은 우울증 발병 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변화하고 반추하기 성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 바 있음.
- 내향성, 신경증적 특성도 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특성으로 고려됨. 성격특성,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여성을 감정기복, 신경증적인 존재로 그림. 그러나 성격특성은 문화권마다 다른 특성을 지내며,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은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무관할 수 없음.
- 즉, 성격특성, 심리적 성향은 여성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며 이러한 시각은 여성우울을 개인의 심리문제로 환원함.

3. 여성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사회적 원인

- 생애과정을 구조화하는 근본적 요인으로서의 젠더
- 성별에 따라 형성되는 정체성, 역할, 기회, 경험, 사회적 위치, 위험과 자원
- 젠더화된 생애과정(gendered life course)

3. 여성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사회적 원인

- 차별적 노출(Differential exposure)론과 차별적 취약성(Differential vulnerability)론
 - 성별에 따라 상이한 유형 및 수준의 자원, 경험, 위험 등을 겪게 됨
 - 이러한 차이가 정신건강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이는 여성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 (저소득층, 이민자 등)에게도 적용됨.
 - 낮은 수준의 자원, 높은 수준의 위험 등이 반복적으로 경험될 때 취약성(vulnerability)이 높아질 수 있음.
 - 그러나 취약성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며 남성과 여성의 본래적 취약성에는 차이가 없음.
- 따라서, 성별에 따라 구조화 되는 삶의 맥락을 파악해야 함.

4. 청년여성의 현실과 정신건강

- 청년여성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사회적 원인
 1. 청년여성의 열망, 기대과 대치되는 모순적 현실
 2. 젠더폭력에 대한 직접/간접 노출과 트라우마

4. 청년여성의 현실과 정신건강: 모순적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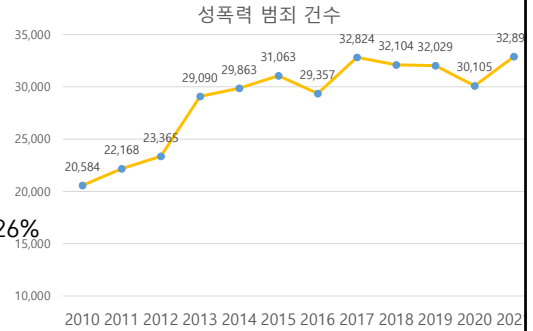
- 청년여성의 열망과 기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75.1%, 남성의 대학진학률은 73.8%로 최초로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의 진학률을 역전, 그 이후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짐.
 - 2019년 기준,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89.7%, 30대 여성의 89.7%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 가정일에 관계 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여성은 20대 75%, 30대 58.8%로 나타남.
 - 청년세대는 여성도 노동중심 생애과정을 주요한 생애전망으로 고려함.
- 청년여성이 처한 현실
 - 교육과정 후 노동시장의 현실
 - 성별 소득격차, 비정규직으로의 유입, 직장내 불평등
 - 경력단절의 미래, 사적 여성에서의 가사, 돌봄노동 불평등
- 열망/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은 아노미를 발생시킴.

4. 청년여성의 현실과 정신건강: 모순적 현실

- 열망(aspiration)/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
 - 아노미의 발생
- 아노미는 긴장(strain)상태
 - 우울, 불안,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 유발
- 이는 공정에 대한 가치와도 맞닿음.
 - 청년여성에게는 공정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인 분배적 정의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

4. 청년여성의 현실과 정신건강: 젠더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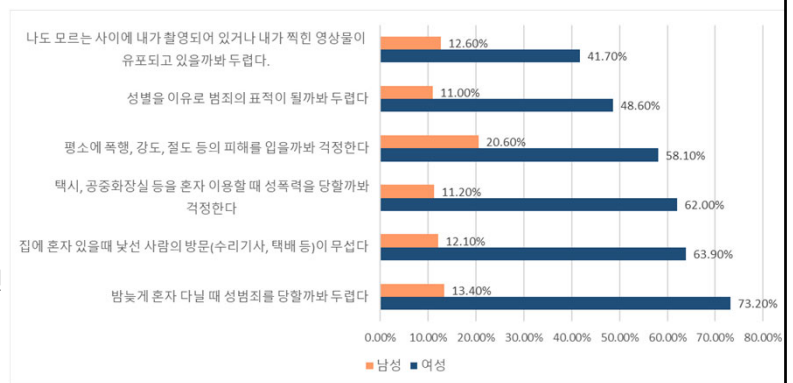
- 직접노출과 간접노출
 - 직접 피해 경험뿐 아니라 미디어 보도, 주변인 경험 등 간접노출의 부정적 영향력 고려할 필요.
-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와 간접 노출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증가
- 청년여성이 피해자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2021년 기준 전체 성폭력 범죄 중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83.26%
 - 전체 여성 피해자 중 57.97%가 16-30세 여성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4. 청년여성의 현실과 정신건강: 젠더폭력

- 간접노출과 트라우마
- 범죄에 대한 불안
 - 성별화된 두려움
- 계속되는 젠더폭력, 살인사건
 -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 2018년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현실
 - 2019년 연예인 정준영 등 관련사건
 - 2020년 N번방
 - ...
 - 2022년 인하대 살인사건
 -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
 - 2023년 금천구 살인사건
 - 2023년 우울증 갤러리 성착취



출처: 여성가족부, <성폭력실태조사>

4. 청년여성의 현실과 정신건강: 젠더폭력

- 직접 노출과 간접노출은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뿐 아니라 불안,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양산
- 성별화된 두려움은 지속적으로 잠재해 있을 가능성 있음.
- 젠더폭력의 피해자의 재피해자화

5. 결론

-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적 지배담론
 - 여성의 우울과 정신적 고통을 여성의 본질적인 특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함.
- 청년여성이 가진 정신적 고통의 사회적 원인
- 지금 청년여성이 목도한 현실은 어떠한가?
-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은 다시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현실에 영향을 미침.
- 해결책은 현실에 대한 진단에서 시작될 수 있음.

-
-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김은지·송효진·배호중·선보영·최진희·황정미(2020).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I):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여성정책연구원.
- Brezina et al., 2017. "General strain theory", Oxford Research Encyclopedias .
- Cutler, S. E., & Nolen-Hoeksema, S. 1991. "Accounting for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through female victimization: Childhood sexual abuse." *Sex Roles*, 24: 425-438.
- Hill, T. & Needham, B. L. 2013. "Rethinking gender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analysis of three propositions." *Social Science & Medicine*. 92: 83-91.
- Marchand, A. et al. 2016. "Gendered depression: Vulnerability or exposure to work and family stressors?" *Social Science & Medicine*, 166: 160-168.
- Moen, P. 2001. "The gendered life course." In R. H. Binstock & L. 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pp. 179-196). Academic Press.
- Rader, N. E., & Hayes, S. H. 2011. "Gendered fear of crime socialization: An extension of Akers's social learning theory." *Feminist Criminology*. 6(4): 291-307.
-

우울증/트라우마 경험과 회복의 조건

최현정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우울증 자체가 사회구조적 폭력의 징후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울증은 아니고 복합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거나 경계성 성격인데, 그 이름이 뭐가 됐던 우울증갤러리 사람들이 애초에 이러한 증후군을 겪게 된 주요 위험요인은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출발했다. ‘타겟’이 된, ‘우울증 걸린 여자들’이 무엇을 겪었는지 이러한 심리학적 관점-트라우마 인식 관점-에서 헤아려보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아동기 학대나 아동기 역경, 가정 폭력, 젠더 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사람에게 무심하며, 특히 사회적 소수자-여성,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경제 자원이 부족한 사람-의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사회구조적 이해가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한 사람이 심리사회적 지원에 접근할 방안이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²⁸⁾은 심리사회적 지원 방법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시대에 이 사람은 고도의 심리지원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약을 먹으라고 하거나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는 이 사람을 위한 적합한 지원이 아니다.

복합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²⁹⁾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조직적 폭력 등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트라우마 경험을 할 때 보일 수 있는 심리적 증후군으로, 트라우마 사건 후 삶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발현된다. 물론 단일한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후에도 그 이후의 해결 과정이 지연하고 피해가 반복된다면 복합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양상을 겪을 수 있다.

후유증 양상을 살펴보면, 사건과 관련하여 반복적인 악몽과 사건을 기억을 다시 강렬한 감정으로 ‘재경험’하는 증상이 있는데, 아동기 학대가 관여한다면 구체적 자서전 기억의 회상이 없는 재경험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밖에 고통스러운 트라우마 사건 단서를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삶이 제한되는 ‘회피’, 그리고 현실 세계의 위협을 높게 지각하여 항상 ‘경계’하고 고립되는 양상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둔감화’되어 위협을 변별하거나 경계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조절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기가 어렵고, 자신을 실패자이며 무가치한 사람으로 지각하여 자기 처벌적인 생각에 시달리며, 대인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고립되어 있으며 건강한 친밀감을 경험하기 어려운 만연한 양상이 특징적이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주요 위험 요인이 아동기 성학대로 알려져 있으며³⁰⁾ 여성에게 더 높은 비율로

28) 중앙일보 (2023. 5. 1.) 학대·학폭 끝 찾는 '아늑한 지옥'...소녀 죽음 문 '울겔' 실체 [울겔 리포트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9162>

2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The ICD-11 for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icd.who.int/browse11/l-m/en>.

30) Hales, H. P., Yu, R., Danese, A., & Fazel, S. (2019). Long-term outcomes of childhood sexual abuse: an umbrella review. *The Lancet. Psychiatry*, 6(10), 830-839.
[https://doi.org/10.1016/S2215-0366\(19\)30286-X](https://doi.org/10.1016/S2215-0366(19)30286-X)

나타나긴 하는데, 남성 비율은 축소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고³¹⁾, 최근에는 성소수자에게도 높은 비율로 보고되고 있다³²⁾. 물론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아동기 성학대를 보고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다른 정신건강 진단에 비해 아동기 학대 및 방임, 대인관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높다.³³⁾ 그래서 복합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원인을 공유하며 매우 유사한 현상을 경험한다. 다만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자기 및 대인관계 경험에서 상당한 기복을 보인다는 점이 있는데, 자기차별적인 모습에서 때로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대인관계의 극단적 고립과 거부에서 극단적인 친밀감과 관계 몰두를 급격히 겪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복은 살아가면서 적절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습득한 삶의 방식인데, 이들의 아동·청소년기를 살펴보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절망의 나락, 그리고 ‘누구라도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의 연속이다.

복합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서 자살 시도 비율은 약 73%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성학대 경험으로 인한 복합 트라우마 스트레스는 자살 행동 위험을 높인다.³⁴⁾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자살 시도 비율은 10년 추적에서 약 21%로 보고된다.³⁵⁾ 이들의 자살 행동은 일부, 삶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삶이 더 나아질 리 없다는 예측에서 비롯된다. 감정 반응은 매우 강렬한 편에 속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통해 위안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해 행동과 충동적인 행동은 유일한 위안책이다. 강렬한 감정은 반대로 극단적인 둔감함과 위험에 대한 지각의 결여로 뒤바뀐다. 특히 아동기 학대 경험은 복합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에서 높은 수준의 해리 증상과 정서조절 어려움을 유발하며³⁶⁾ 이는 추후 대인관계 폭력 피해 반복과 관련이 높다는 실증 증거가 있다.³⁷⁾ 문제는 이러한 트라우마성 기복을 착취의 타겟으로 삼는 가해자들이 있다는 점이고, 이를 트라우마성 반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관점에 있다.

3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R*. Authors.

32) Rodriguez-Seijas, C., Morgan, T. A., & Zimmerman, M. (2021). Is There a Bias in the Diagnosi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Patients?. *Assessment*, 28(3), 724-738. <https://doi.org/10.1177/1073191120961833>

33) Ibrahim, J., Cosgrave, N., & Woolgar, M. (2018). Childhood maltreatment and its link to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pproach.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3(1), 57-76.

34) Gelezelyte, O., Kvedaraitė, M., Kairyte, A., Roberts, N. P., Bisson, J. I., & Kazlauskas, E. (2022). The mediating role of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and borderline pattern symptoms on the association between sexual abuse and suicide risk.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9(1), 13. <https://doi.org/10.1186/s40479-022-00183-z>

35) Yen, S., Peters, J. R., Nishar, S., Grilo, C. M., Sanislow, C. A., Shea, M. T., Zanarini, M. C., McGlashan, T. H., Morey, L. C., & Skodol, A. E. (2021). Association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riteria with Suicide Attempts: Findings From the Collaborative Longitudinal Study of Personality Disorders Over 10 Years of Follow-up. *JAMA psychiatry*, 78(2), 187-194. <https://doi.org/10.1001/jamapsychiatry.2020.35981>

36) Choi, H., Lee, W., & Hyland, P. (2021). Factor structure and symptom classes of ICD-11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South Korean general population sample with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Child abuse & neglect*, 114, 104982. <https://doi.org/10.1016/j.chiabu.2021.104982>

37) Krause-Utz, A., Dierick, T., Josef, T., Chatzaki, E., Willem, A., Hoogenboom, J., & Elzinga, B. (2021). Linking experiences of child sexual abuse to adult sexual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role of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dissociatio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8(1), 10. <https://doi.org/10.1186/s40479-021-00150-0>

이들은 암묵적으로 착취를 인지한다. 다만 대안적인 관계가 없을 뿐이다. 착취적인 관계가 없다면 과연 이들에게 주어진 관계는 또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자기 보호의 실패로 해석되어 버리는 이러한 행동에서 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아마도, “아무도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다”는 절규일 듯싶다. ‘정상 사회’로 돌아오라는 손짓은 기만이고 이들은 환멸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단 한 번도 환경이 ‘정상적’인 적이 없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가장 극심한 사회적 편견에 덧붙은 정신건강 분야 개념 중 하나인데, 자신을 알아달라는 강렬한 욕구를 지닌 여성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사회는 그러한 여성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매달리고, 애원하고, 저주를 퍼붓고, 자살로 협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절망적이게도, 살인을 하는 사람들로 변신해버리고 말았다. 심리치료자들조차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진단명에 붙은 낙인은 순전히 남성중심적인 오래된 정신건강 분야의 지겨운 전통 때문이다. 이는 여성 경험에서 아동기 학대와 폭력의 증언을 누락시킨 전통이고³⁸⁾, 여성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부적절한 분노”로 경시하고 자기 주장을 격려받지 못한 서투름을 “조종하는 행동”으로 멸시한 전통이다³⁹⁾.

여성과 성소수자에게 경계성 성격 양상이 높게 추정되는 공통 이유는, 이들은 존재의 부정을 겪었다는데 있다. 이들은 분명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서 반응과 내적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환경을 겪는다. 존재를 부정당하는 분노를, 자연스러운 자기 삶의 욕구를 무시당한다. 이러한 환경 경험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자연스러운 자기 욕구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을 보호한다는 감각을 느끼기 어렵게 하고, 타인의 승인 여부에 따라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때때로 이들이 강렬한 존재 표현으로 폭발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관해 좀 더 추가하고자 한다. 반복적인 디지털 성폭력을 더 많이 겪는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이 중첩되는 양상이 있다.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성폭력, 아동기 성학대, 아동기 역경이라는 다중의 피해를 겪었고 이들의 복합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의 잠재 진단 비율은 58.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⁴⁰⁾ 이는 자살 및 자해 등의 행동 문제와 트라우마 후유증을 다룰 수 있는 강도 높은 심리학적 지원이 요청된다는 뜻인데, 불행히도 이러한 고강도의 심리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제한되어 있고 심리학자의 지원 제공 경로는 막혀있다.

요컨대, 우울증갤러리는 열악하고 폭력적인 삶의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부재를 드러내는 징후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는 사람에 대한 낙인이 현저하며, 이들이 살아갈 방식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징후이다. 아동기 역경과 학대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편견 없이 자세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삶이 가능하며 다만 누구도 해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더 중요하게, 충분히 검증된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단순한 삶의 잣대로 선불리 구원하려는 일을 그만두고, 누군가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권리는 자신에게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전문적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밑바탕도 필요하다.

38) 주디스 허먼 (1997/2012). 최현정 역. 트라우마. 열린책들.

39) 마사 리네한 (1993/2023). 최현정, 이한별, 허심양, 김지강, 조이수현 역. 변증법행동치료. 학지사.

4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디지털 성폭력 피해 치유 회복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리고 오히려 고통에 빠진 사람을 폭력의 타겟으로 삼는 사람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야 하겠다.

함께 이야기하기

플로어A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감사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울증갤러리'를 이용하는 굉장히 발산적인 활동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이해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자화할 생각은 없는데,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시도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는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디시인사이드'는 오타쿠 분야에서 파생돼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매력이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게 양적으로 질이 좋은 나쁜 우리의 한국사회 보수적인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개인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게 있고 과몰입 문화를 통해서 결국 그런 식으로 해소하려는 식으로 유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청소년처럼 지원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나 가정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인터넷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10대는 굉장히 생애주기가 짧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15살, 14살 이렇게 나이가 어리면 당연히 나는 그냥 어떤 트러블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잘 못해요. 잘 못하고 나의 가정, 어른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트러블을 장기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사람들이지도 않아요. 되게 즉각적으로 화가 나면 뭘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게 단기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 같이 과몰입하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안 좋은 스트레스를 반복하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나의 평생에 걸쳐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끝느냐에 대한 건데. 이렇게 생애주기가 짧은 경우에 교육수준도 짧고 이러다 보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연애나 가족 같은 정상성 미화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랑, 나를 맹목적으로 알아주고, 무조건 이해해 주고 돌봐주고 엄청난 나에게 안식을 주는 사랑이 있을 거라는 환상을 깨기가 힘든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가정, 정말 괜찮은 가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정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별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고. 생애에는 언제나 그런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삶의 자연성 자체를 받아들이는 교육이 부재하는 게 이러한 피해자에게 좀 더 효과적인 회복의 제안을 못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10대들이 예민한 부분, 과시하고 싶어하고 또래그룹에서 잘 지내고 싶어하고 촉각적이고 직각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TV에서 이수창 교수님이 나오셔서 소년 범죄자들에게 요리가 효과적인데. 특히 제빵이 완화를 보였다고 보였는데 촉각이나 활동적인 순간순간의 완결성이 있는 경험을 가지게 해 주는 경험어.

삶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공부가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가게 하려는 방법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듣고, 때로는 적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고 이러한 말을 들었고 이러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냥 토를 달지 않고 그것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랬어' 라고 하면 '너무 불행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감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객관화시키는 작업 자체를 언어로서 그 사람 표현력을 늘리는 것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의 자발성, 그 사람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무언가. 내가 안 좋은 경험으로 삶이 누적되었을 때 그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경험들을 양적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제공해 주는 것. 저는 그게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의논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수)

사회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디에 집중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더 코멘트 주시거나 또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이 계실까요?

플로어B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울증갤러리'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마지막에 최현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경계성 성격장애 이야기하신 게 낯선 개념이기도 해서요. 이야기를 듣다보니 20대 여성을 비롯해서 여성들이 많이 겪는 문제와 상당히 연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주로 외국 자료를 많이 인용하셔서 이게 한국에도 어떤 통계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뉴스를 찾아봤더니 정유정이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어떤 전문가가 말을 했는데 굉장히 오해나 낙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최현정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경계성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하고요. 적절한 설명은 아닌 게 맞고. 그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엄청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은 사람을 해치는 게 주된 모습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 분야에서는 트라우마,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고 자란 청소년이나 성인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더 이해를 하고 있고.

플로어B 우울증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최현정 우울증이랑은 다르지만 경계성 성격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우울장애를 진단 같이 받으시고 극심한 우울이 동반되는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울증갤러리'에서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경계성 성격으로 저희 분야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서적인 조절이 어려운데 정서조절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정서들이 폭력 경험과 관련된 경험들이라서 조절이 어렵고 트라우마와 관련된 정서 경험이 있으시고,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받으시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낙인을 찍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대표적으로 자해 행동, 자살 행동으로 아까 지루하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공허함일 것 같은데. 오래된 공허함.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학대나. 물론 저희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잘 설명 드리자면 존재를 무시하는 환경.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플로어B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쭙보면 혹시 자폐성 성격장애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최현정 자폐화는 그렇게 많이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폐인 분들 중에서 경계성 성격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학대나 폭력을 경험하셨다면.

사회자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셨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플로어C 혹시 심각한 우울감이 아니라 그냥 적은 우울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이트에 접근했을 때도 이러한 비슷한 피해를 입거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경미한 수준의 사춘기 우울감으로 빠져들었을 때 계속 악영향을 받으면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건지 위험성이 궁금합니다.

이민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회학하는 사람으로서 예측을 해본다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분부전이라는 상태가 있잖아요. 기분부전인 상태에 약한 정도의 우울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말씀하신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관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여성성 규범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거든요. 친밀성이 중요하고 관계지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면화된 가치예요. 이게 양날의 검처럼 굉장히 이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친밀한 관계를 잘 쌓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노년기에 가면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삶이 힘들어지고 이러는데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소위 연대가 가능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성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로맨틱한 관계에 대한 환상 같은 것도 존재하거든요. 우울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약간 기분부전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여성 청소년이 관계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표현 같지만, 관계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혹시 뭔가 더 보충 답변이나 발제자 분들께서 말씀 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김신아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질문에서 이야기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는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놓여있는 사회조건적 환경이나 빈곤한 관계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우울증과 분리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온라인이라는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의 세계가 되어버린 측면이 있고. 이 세계에서 누가 타깃이 되고

피해를 입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말이 잘 되지는 않지만, 우울증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와 연관을 떨어뜨려 놓고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로어D 안녕하세요. 저는 탈가정 혹은 탈학교 원가정에 있지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0대를 지원하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10대 여성들을 만날 때 이분들의 맥락을 지원하는 방향을 탐색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호연님께서도 좋은 친밀성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최근의 고민과 맞닿아있는 이야기라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폭력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10대 여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의 관계로 중심을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남친이 되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로맨틱한 친밀성, 다른 친밀성을 어떻게 하면 공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함께 경험할 것인가, 경험했는데 어떤 것이 좋은 친밀성인지 상상력이 존재하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지? 내부에서부터?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자 호연님께서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호 연 할 이야기가 많을까요?(웃음) 사실은 취약한 조건에 있다는 건 이상하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폭력적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최현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힘든데 힘든 사람들도 돌보고 싶은 마음이 그거는 또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싶다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관계를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지금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취하고 싶은 방식은 그 애의 주변에 안 좋은 관계들을 거리를 두거나 어느 정도 단절하려는 방식으로 이별을 종용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좋은 관계가 많이 채워지면 좋는데 당장 그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관계가 왜 문제적 관계일 수 있는지 당신에게. 그래서 저는 이별을 할 수 있는 힘도 엄청난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성향들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 관계가 없으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 관계를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계속 그 관계를 하라고 이야기는 못 하죠. 그렇게 하면 저를 안 만나겠죠. 그런 방식이 아닌 그 관계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많이 말 걸기 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안목을 높이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전에 더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게 보지만 사실 이러한 점이 있지 않냐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뭔가 씨앗들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삶의 변화를 통해서 결정이 오는 시기가 오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사회자 갑자기 마이크를 넘겨드렸는데 좋은 대답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의 40분이 되어 가는데 혹시라도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플로어E 저도 청소년들을 주로 만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 주제를 무겁다고 생각할 때 짐을 나눠지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는 호연님이 말씀하신 큰 변화, 적극적인 위험을 이야기하기가 고민되는 시기인데. 이를테면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오케이라면, 위험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오케이인가? 이런 질문이 저는 되게...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라는 건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위험한 관계를 선택하는 맥락과 이유를 너무 알겠고 그랬을 때 나는 대안적이고 좋은 관계가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지지망이 되어주려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 선택에서 자기의 욕구를 찾고 자기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이 없이 이것은 위험하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은 생각보다 너무 위험해보이기도 (웃음) 하는 이 순간들에 그런 것에서 위험하다는 걸 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는 게 저도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 네. 아슬아슬 줄타기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집담회 주제 관련해서 전달하고 싶은 질문이나 메시지를 받았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연대를 만들고 대응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여성연대가 함께 도모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질문을 주신 분은 타인으로서 우울 겪는 10대 여성들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온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나 행동을 함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발제자 분들 소감에 녹여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소감과 함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소감 신아님부터 소감 부탁드립니다.

김신아 일단 벌린 집담회 판이었는데 저희가 너무 생각해보아야 하고 건져낼 수 있는 키워드들을 나눠주시고 각자의 현장과 전문성의 자리였어서 저에게도 너무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신성연이 오신 분들이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무엇이 가장 궁금하고 무엇에 관심이 많으신가. 오늘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또 기회가, 좀 더 모아지는 관심을 더 깊게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또 플로어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호 연 저는 청소년들 이야기할 때 위험 등의 관계는 여전히 잘 해결되지 않고 담론화가 충분히 잘 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보호주의로 빠지기가 너무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보호주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은 쟁점들을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이민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다양한 시각을 새롭게 공부해서 좋았는데 사회학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가졌던 고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인 원인이 중요한데 일시적인 단계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고민들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벌어지는 일들을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길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최현정 우리가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정황을 잘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행동의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고 위험하거나 낙인찍힌 행동을 사실은 살아가려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건강 쪽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분야가 경험하는 걸 맥락적인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석해 주시고 이 분들의 행동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자주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박수)

사회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랑 남성성, 강간문화 이런 키워드들이 남는데 오늘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발표해 주신 다섯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집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